

LG U+, 1100만명 유심 전면 교체... 외부추적 가능성 차단

오는 13일부터 교체·업데이트 시행 식별번호 체계, 난수 기반으로 전환 업데이트·매장 방문으로 교체 가능 연락처·터미니 잔액 등 백업해야

가입자 식별번호(IMSI)에 실제 전화번호 일부가 포함된 구조로 인해 위치 추적 등 보안 우려가 제기되자 LG유플러스가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업데이트와 무상 교체에 착수했다. 약 110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치는 식별번호 체계를 난수 기반으로 전환해 외부 추적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대응으로, 예약 접수를 시작으로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8일 LG유플러스는 보안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USIM) 업데이트 및 무료 교체 사전 방문 예약을 받기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가입자 식별번호(IMSI) 생성 과정에서 실제 휴대전화 번호가 일부 포함돼 개인정보 노출 및 위치 추적 등 보안 우려가 제기



LG유플러스 직원이 U+one 앱 내 매장 방문 예약 안내 페이지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

/LG유플러스

된 데 따른 대응이다.

무상 교체 대상은 스마트워치 등 세컨드 디바이스와 알뜰폰(MVNO) 이용자를 포함한 약 1100만 명에 달하며, 실제 교체 및 업데이트 업무는 오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문제가 된 가입자 식별번호 방식은 2011년 4세대 이동통신(LTE) 도입 초기부터 가입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할 때

실제 전화번호를 조합하는 형식을 취해왔다. 통상적으로 타 통신사가 난수값을 사용해 제3자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게 설계하는 것과 달리, LG유플러스의 방식은 이론적으로 가짜 기지국 장비를 활용해 특정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스토킹 범죄나 주요 인사의 동선 파악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가 확산하자, LG유플러스는 식별번호를 무작위 숫자로 재배분해 외부에서 가입자 정보를 추적할 수 없도록 방어벽을 높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LG유플러스는 IMSI 단일 정보만으로는 개인정보가 확인되거나 유출돼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여러 키와 인증단계가 결합해야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단일 정보만으로는 결제, 도청, 감시 등의 실질적 위험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객은 본인의 유심 종류와 단말 상태에 따라 온라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거나 매장을 방문해 실물 유심을 교체할 수 있다. 대부분의 고객은 요일에 관계 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U+one'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업데이트가 가능하지만, 노후 유심이나 자급제 단말기, eSIM 사용자 등은 매장 방문을 통한 실물 교체가 필수적이다.

매장 방문을 원하는 고객은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8일부터 사전 예약을 신

청해야 하며, 방문 시에는 반드시 본인의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명의자와 대리인 모두의 실물 신분증과 해당 단말기를 모두 지참해야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유심을 교체하더라도 카카오톡이나 연락처 등 대부분의 앱 데이터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유심 자체에 저장된 연락처나 선불형 교통카드인 터미니 잔액 등은 미리 백업하거나 별도의 환불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인증서와 PASS 앱 등 보안이 중요한 일부 서비스 역시 교체 후 재등록 과정이 필요하다.

이재원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부사장)은 "고객이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유심 업데이트 및 무료 교체를 받을 수 있도록 예약 시스템과 현장 운영 체계를 함께 준비했다"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강화된 보안 체계를 차질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SKT, AI로 벚꽃 축제 트래픽 폭증 해결

석촌호수·여의도 등 주요지역서 진행 이전 주말비 데이터 사용량 1.5배 ↑ '스파이더' 'A-One' 시스템 등 적용

SK텔레콤은 벚꽃 축제 기간 인공지능(AI) 기반 코어 네트워크 관제 시스템을 적용해 대규모 인파 속에서도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통신 서비스 제공은 석촌호수와 여의도 등 주요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SK텔레콤은 AI 기반 선제 대응 체계를 통해 통신 장애 없이 서비스를 운영했다.

지난 주말 축제 지역에서 사용된 모바일 데이터는 총 44.9TB로, 이전 주말 대비 약 1.5배 증가했다. 트래픽이 가장 많았던 날은 4일로, 석촌호수 15.91TB, 여의도 7.3TB를 기록했으며, 여의도는 5일에 8.5TB로 더 높은 사용량을 보였다.



SK텔레콤 직원들이 스파이더를 통해 벚꽃 축제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SKT

연령대별 방문 비중은 50대 이상이 31%로 가장 높았고, 데이터 사용 비중은 20대가 29%로 가장 많았다. 주요 트래픽 발생 앱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페이스북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운영에는 AI 기반 코어 네트워크 관제 시스템 '스파이더'가 적용됐다. 해

당 시스템은 네트워크 장비를 통합 관제하고 알람 및 통계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AI 기반 네트워크 운영 시스템 'A-One'과 연계해 트래픽 증가를 사전에 예측하고 실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김서현 기자

통신3사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 도입

과기부, 요금제 개편 방향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8일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3사 요금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데이터 중심 통신 접근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모든 LTE·5G 요금제에 별도 요금 인상 없이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요금제 이용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약 717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메신저와 지도 검색 등 최소한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고, 통신비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

고령층 대상 혜택도 확대된다. 만 65

세 이상 이용자에게는 음성과 문자가 기본 제공되며, 기존 제한 요금제 가입자에게도 추가 제공이 이뤄진다. 약 140만 명이 대상이다.

요금제 구조도 단순화된다. LTE와 5G 요금제를 통합해 전체 요금제 수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 2만 원대 5G 요금제도 신설된다. 연령별 혜택은 별도 가입 없이 자동 적용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이용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최적요금제 고지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데이터 접근권을 기본권 수준으로 강화하고, 상반기 내 개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웨이브 '마스터스 토너먼트' 전 라운드 생중계

웨이브는 골프 메이저 대회 '2026 마스터스 토너먼트'를 전 라운드 생중계한다고 8일 밝혔다.

대회는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4월 9일부터 12일까지 열린다. 웨이브는 개막 이벤트인 '파3 콘 테스트'를 시작으로 1라운드부터 시상식까지 전 일정을 중계할 예정이다.

올해로 90회를 맞는 마스터스는 초청 선수만 출전하는 대회로, 우승자에게 '그린 재킷'이 수여된다. 한국 선수로는 임성재와 김시우가 출전한다.

웨이브는 모바일, PC, 스마트TV 등 다양한 기기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스트리밍 환경을 구축했다.

/김서현 기자

네이버, 약 20년 만에 '연관 검색어' 종료

AI 중심 검색 체계로 전환

네이버가 약 20년간 운영해 온 '연관 검색어' 서비스를 이달 말 종료하고 AI 중심 검색 체계로 전환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통합검색 결과 상단에서 제공해 온 연관 검색어 기능을 오는 30일 중단한다. 2000년대 중반 도입된 해당 기능은 이용자의 검색 의도를 확장하고 추가 탐색을 유도하는 보조 검색 도구로 활용돼 왔다.

연관 검색어는 특정 키워드 입력 시 관련 주제를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왔다. 이용자가 '한국'을 검색하면 '한국 축구', '한국 시간' 등 파생 키워드를 제공해 검색 흐름을 이어주는 역할을 수행했다.

네이버는 이번 개편을 통해 정형화된 키워드 제안 방식에서 벗어나 AI 기반 개인화 추천으로 전환한다. '함께 많이 찾는', '함께 보면 좋은' 등 이용자의 관심사와 맥락을 반영한 AI 추천 기능을 중심으로 검색 경험을 고도화한다는 전략이다.

또 2분기 중 대화형 AI 검색 서비스 'AI탭'을 출시해 검색 방식을 전면 재편한다. 기존 연관 검색어가 담당하던 탐색 기능은 AI 추천 및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대체될 전망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용자의 의도와 맥락에 맞는 검색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개편"이라며 "AI와 검색의 결합을 지속 강화해 신뢰도 높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vitna@

SOOP, 스포츠 라이브 플랫폼 경쟁력 확대

'OGFC vs 수원삼성 레전드' 중계

SOOP이 오는 19일 오후 7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OGFC vs 수원삼성 레전드' 매치를 실시간 생중계한다.

이번 매치는 박지성, 리오 퍼디난드, 라이언 깁스, 에드윈 반 데 사르 등이 포함된 OGFC와 서정원, 염기훈, 고종수 등이 나서는 수원삼성 레전드 팀의 맞대결이다. OGFC는 선수단 전성기 시절의 커리어 하이 스타인 73% 돌파를 목표로 내걸었고, 이번 경기는 그 도전의 출발점이다.

중계 채널은 MBC와 스포츠2 유튜브 채널로도 확대되지만, 유튜브는 10분 지연 송출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 중 무지연으로 경기를 볼 수 있는 곳은 SOOP이 유일하다는 점이 이번 중계의 핵심 포인트로 꼽힌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SOOP은 플랫폼 개방성도 함께 앞세



왔다. 스트리머 누구나 해당 경기를 자유롭게 코스트리밍할 수 있어, 각기 다른 해석과 반응을 얻은 다채로운 중계가 동시에 가능하다. 경기 당일 수원월드컵경기장 일부 구역에는 'SOOP ZONE'도 마련해 스트리머들의 현장 라이브와 모바일 방송을 연계할 계획이다.

이번 중계는 SOOP이 실시간 스포츠 라이브와 참여형 시청 경험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플랫폼 경쟁력을 확대하려는 행보로 읽힌다.

/최빛나 기자